

나무가 저렇게 큰 데도 매년 자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나무는 말없이 일러줍니다.

-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반야용선 타고 극락왕생 하소서 조계사(주지 토진)는 7월 1일 초하루 신중기에서 '반야용선 진수식'을 봉행했다. 이날 반야용선은 묶여있던 오색실을 '관음도'와 '극락도'로 끊어냄으로써 진수됐다. 반야용선 이운 후, 조계사 사부대중들은 흥성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백미 20kg들이 20포대를 김석한 흥성군수에게 기부·전달했다.

## 법개정은 불교 특혜

### 국립공원정책포럼서 지적... 전문가부터 취지 바로 알려야

자연공원법 개정이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공원 정책포럼'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점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6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자연공원법의 발전적 운용 방안이 모색됐다. 토론회로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불교계에 대한 특혜이고, 특정 종파를 위한 정책이다. 문화재 관료료를 주지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으로도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평우 소장은 "이 규정은 개인의 제사를 위한 행위까지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사찰 발전과 자연공원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10월 시행 전에 재논의 등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요섭 국립공원내장산탐사대책

공을 건널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자로 참여했던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우려일 뿐,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전통사찰 보존과 자연공원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 과장은 "법률상 충돌의 우려는 없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우선하며 예산지원이 아닌 행위허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이번 개정은 특정 종교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사람이 다수 분포돼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원 과장은 이번 개정 작업이 의인 입법으로 추진돼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문화재청과 불교계가 내부 기준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면 난개발 등 각종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입장료·불사 관련 대국민 홍보 필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재청장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이나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률상 충돌에 대한 우려다. 황 소장은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 주지에 의한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건립을 가능하

위 법률자문변호사도 자연공원법이 개정 과정에서 여러 수렴과정이 부족했고, 불교계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윤남진 NGO 리서치 소장은 자연공원법이 취지를 살려 운용되려면 관리주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자연공원 관리에 있어 개방적이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시행과정에서 이런 협의망을 만들어야 외

## "행복은 환상을 깨는 것부터"

### 설정 스님, 가야산 성역화 운동서 법어



설정 스님은 6월 28일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 전 참가자들에게 법어를 내렸다. 가야산 성역화를 위한 불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스님의 법어를 요약해서 전한다.

진리는 인간의 욕망, 환상을 깨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행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는 환상을 깨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늘 우리가 걷게 될 가야산은 우수한 생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국보급 문화재들이 산재한 소중한 곳이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가야산에 불을 지르고 남연군의 묘를 썼

다.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서쪽의 개심사와 남쪽의 수덕사만이 남아 있지만 본래 가야산에는 4개의 큰 사찰과 66개의 사찰들이 분포돼 있었다. 그만큼 이곳은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 스님과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던 곳이다. 지금 진행되는 당국의 모든 계획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환락의 사업이다. 인간내면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제시하는 정채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문화 재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 생명과 보람있는 삶을 위해 성역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5면 박기범 기자

##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 시급

### 문화부·불교문화사업단 이원화는 비효율

"불교문화의 콘텐츠화에 앞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인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불교문화의 콘텐츠화에 대한 각종 연구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그 방향 설정과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교계가 주체가 되며 포교원과 총무원 문화부가, 공공성 강화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며 기획실과 총무부가, 수익사업화는 기업이 주체가 되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관 부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낙단보 마애불 비피해 "문제없다"

집중호우로 4대강 낙동강 구간 곳곳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낙단보 마애불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6월 26일 두산건설을 통해 확인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28일 대문사 해국 스님에게 확인한 결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팀 간사는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사회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불교문화콘텐츠 정책토론회에서 "수익사업화와 문화포교, 공공성강화의 갈림길에서 그 방향성을 뚜렷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신 간사는 "중단 차원에서 현재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을 주요 정책과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이 모호하다"며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의 이런 주장은 조계종 문화부의 업무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업무 등이 향후 불교문화 콘텐츠 사업 발달로 인해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 예상 때문이다. 김유신 간사는 문화포교는 종

## "이주민 표적 단속은 종교편향"

### 불교계 단체들, 법무부 주말 단속 비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불교계 단체들은 6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당할 절차 없는 단속과 거짓 약속에 법무부는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토요일인 18일 김포시 방갈라 데시아 법당 보타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 2명을 단속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말·길거리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불교계 단체들이 이번 단속이 인종차별, 인권침해, 종교편향적 단속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법당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표적 단속은 이주민들의 종교행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기범 기자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843호 CONTENTS	
현장속으로 1 백제의 미소길 걷기	5
'희망' 선포한 참 교인 법정, 김수환, 강원용	6
선지식을 찾아서 성원 스님	16·17

## 제3차 백양사 야단법석 수행결과와 참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

황백스님이 어느 날 대중한테 법문하였다.

"너희들 대중들은 하나같이 술짜거나 먹고 잔자 술을 마신듯 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行脚)간다면 어느 날에 깨닫겠느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 안에는 선사(禪師)가 없음을 아느냐?" 그 때에 한 스님이 문득 말하였다.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린 것은 무엇입니까?" 황백스님이 말하였다. "선(禪)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스승이 없을 뿐이다."

질그릇이나 공예품을 만들려 하더라도 스승을 찾아나서야 한다.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구하고 스승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지금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섰으나 갈팡질팡이다. 무엇 때문인가?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경전(經典)인가,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語錄-법문)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 해답은 야단법석에서 말해 줄 것이다.

□ 법사스님과 주제

- 해남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_ 율장에 담긴 수행결과
- 시몽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_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과
- 용타스님(동사십 행복마을 이사장) \_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과
- 도법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_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_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과

□ 일 시 : 2011년 8월 4일(목) 1시 ~ 8월 7일(일)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동 참 비 : 20만원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 신문사

□ 접 수 처 : 백양사 신도국

□ 계좌번호 : 농협 645117-51-014851 (예금주 : 백양사)

□ 문 의 : 전화 061)392-0434 / 392-0100 팩스 061)392-208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속리 26번지

※ 개인침구류 및 편의품을 준비해주시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